

강릉시립미술관, 미술 아카데미 운영

강릉시립미술관 홀을에서는 건축과 예술의 경계를 넘나드는 특별강연으로,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건축가들을 초청하여 도시와 공간을 이해하는 새로운 시각을 제공하고자 미술 아카데미를 운영하고 있다.

마지막 강연인 4회차 강연은 이달 25일(목) 남성택 교수를 초청하여 ‘건축, 분위기의 예술’이라는 주제로 진행된다.

남성택 교수는 현재 한양대학교 건축학부 교수로 재직 중이며, 도시 이론 및 그 상호관계를 연구하는 학자이자 건축 분야 유명 연사로서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다.

미술 아카데미 강연은 이달 9월까지 매월 마지막 주 목요일, 총 4회에 걸쳐 무료로 운영하며 평일 낮 미술관 방문이 어려운 시민들도 참여할 수 있도록 저녁 7시 30분에 운영한다. 교육 참여는 강릉시립미술관 누리집을 통해 사전 신청할 수 있으며, 4회차 참여자 모집 기간은 9월(8)부터 오는 18일(목)까지이다.

자세한 사항은 누리집(www.gn.go.kr/mu) 교육란을 확인하거나, 강릉시립미술관(033-640-4271)에 문의하면 된다.

삼국유사 강릉시립미술관 관장은 “남성택 교수는 tvN ‘벌거벗은 세계사’, 두산아트센터 ‘두산아트스쿨’등 강연을 통해 대중에게 친숙한 강연자로, 다양하고 흥미로운 건축 강연으로 유명한 분”이라며, “이번 마지막 강연을 통해 건축에 대한 지식과 감성을 채우는 시간이 되시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청정 화천산 명품 농산물

산천어축제장에서 만난다

정한 화천의 산과 들에서 자란 싱싱한 농산물들이 2026 열읍나라 화천산천어축제장에서 관광객들과 만난다.

화천군은 지난 8일부터 각 읍면 사무소를 통해 내년 축제장 출품용 농특산물 신청을 접수한다. 신청 기한은 내달 2일까지다.

화천에 주소를 두고, 지역에서 1년 이상 농특산물을 생산하고 있다면, 신청이 가능하다. 신청 규모는 농가 당 최대 3개 품목 이내다.

1차 가공 농산물 판매 업체는 화천지역 업체 등록 확인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산천어축제장에서 판매될 제품인 만큼, 엄격한 품질관리 기준이 적용된다.

기본적으로 식품위생법, 축산물 위생관리법, 농수산물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등 규정이 적용되며, 자체 품질관리팀의 조사 및 심의로 출품 여부가 결정되며, 관리된다.

화천군은 10월부터 12월까지, 출품 신청 농가 현장 점검을 실시해 준비 과정을 점검할 계획이다.

품질 관리팀은 농산물의 재배와 관리, 생산 이행여부는 물론 품질 현장조사, 보관상태 점검, 최종 납품검수, 전열품 수시 검사 등 사후 관리까지 맡는다.

군은 우수한 품질의 농특산물은 판매장에 우선 비치하고, 별도 전열해 소비자들의 선택을 받을 수 있도록 유도한다는 방침이다.

최문소 화천군수는“관광객들과 농업인 모두 웃을 수 있도록 최고의 농특산물을 축제장에 공급토록 하겠다”고 밝혔다.

강원특별자치도, ‘워라벨 1번지’ 선정 가족친화 복무제도

가족친화 직장문화 정착 위한 실질적 변화 추진

특별한 선상 초대장, “강원을 만나세요”

강원특별자치도(도지사 김진태)는 7월부터 8월까지 두 달간 육아시간과 유연근무제를 적극 활용해 가족친화적인 조직문화 조성에 앞장선 부서를 ‘워라벨 1번지’로 선정했다고 밝혔다.

선정 부서는 ▲감자종자진흥원 감자원종장 ▲일자리청년과 ▲산불방지센터로, 해당 부서 직원들의 육아시간·유연근무제 활용률은 90% 이상에 달한다.

또한 전제 부서의 육아시간 및 유연근무제 활용률은 각각 77.8%, 14.2%로, 전년 동기 대비 각각 4.9%p, 4.8%p 증가했다.

도는 가족친화적 직장문화 조성을 위해 육아 제도 정비와 활성화에도 꾸준히 힘써왔다.

지난 7월에는 육아시간 사용 결재관자를 과장에서 팀장으로 하향 조정해 제도 활용 문턱을 낮췄다.

육아휴직자와 복직자에게는 도지사 명의의 격려 편지를 발송해 육아의 가치를 응원하고 심리적 지지를

전했다.

아침방송에 직원 자녀들의 응원 메시지를 송출하는 ‘꼬마 디제이(DJ)’가 전하는 사랑의 메시지’ 프로그램을 통해 가족의 응원과 애정을 전달, 긍정적인 조직 분위기 조성에도 기여했다.

여중협 강원특별자치도 행정부지사는 “가족친화적 직장문화는 단순한 복지를 넘어 행정의 질을 높이고 조직 역량을 강화하는 밑바탕”이라며, “앞으로도 일과 삶이 조화를 이루고 직원들이 자긍심을 갖고 일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강원특별자치도가 속초항을 출발한 크루즈 선상에서 도민과 국제 관광객을 동시에 만났다. 도는 도민 크루즈 체험단 200명과의 소통 간담회, 그리고 해외·타지역 승객을 대상으로 한 홍보 이벤트를 이어가며 2025~2026 강원방문의 해를 알리는 이른바 ‘투트랙 전략’을 펼쳤다.

먼저 진행된 도민 체험단 간담회에는 손창환 글로벌본부장과 엄윤순

도의회 농수산위원장, 배상요 속초부시장이 함께 자리해 크루즈 관광에 대한 도민들의 목소리를 들었다.

체험단 참가자들은 크루즈 관광이 강원 관광산업에 가져올 변화와 기대에 대해 열띤 의견을 나누며 높은 관심을 보였다. 이에 도를 대표하여 글로벌본부장도 “도민이 직접 체험하고 목소리를 내는 것이 강원 관광을 발전시키는 가장 든든한 힘”이라며, 현장의 생생한 제안이 향후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한편, 이번 크루즈에는 해양수산부 국민크루즈 체험단 70명도 함께 승선했다.

오후에는 크루즈 국제 승객을 대상으로 한 홍보 무대가 이어졌다. 부산과 수도권에서 승선했던 관광객들은 선내에 마련된 강원관광 홍보부스와 경품 추첨 이벤트, ‘강원생활도민제’ 안내 프로그램에 발길을 멈췄다.

강원특별자치도는 이번 크루즈 선상 행사가 단순한 체험과 홍보를 넘어, 도민과 국민의 참여가 정책으로 연결되고 국제 관광객의 관심이 실제 방문으로 이어지는 선순환 구조의 출발점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김민석 기자

‘2025 원주라면페스타’ 최종점검 보고회



원주시는 오는 19일부터 21일까지 3일간 우산동 상지대학교 노천극장 일원에서 열리는 ‘2025 원주라면페스타’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해, 지난 5일 최종점검 보고회를 개최했다.

이번 보고회에는 원주시, 상지대길상인회, 삼양식품, 상지대학교 등 축제관계자들이 참석해 세부 실행계획을 종합적으로 점검하고 보완 사항을 논의했다.

관계자들은 행사 동선과 무대·부스 배치, 안전관리와 편의시설 운영계획, 주차 및 안내 체계 등을 끝까지 살피며 현장 운영의 완성도를 높이는 데 집중했다. 특히 개막식 시간을 기존 19일 오후 6시 30분에서 6시로 30분 앞당겨, 더 많은 시민과 관광객이 편안하게 무대를 즐길 수 있도록 했다.

프로그램 구성도 최종 확정 단계에

김민석 기자

평창군, 무허가·미등록 축사 자진신고 운영

평창군은 최근 국내 한 불법 축사에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가 발생한 것을 계기로, 선제적 방역 조치와 재해 대비 강화를 위해 ‘무허가·무등록 축사 자진신고 센터’를 설치·운영한다.

자진신고 센터는 9월 8일부터 18일까지 10일간 평창군농업기술센터 축산농기계과에서 운영되며, 신고한 농가는 6개월의 시정 기간에 허가·등록 절차를 이행하거나 가축을 처분할 수 있다.

군은 자진신고 기간 종료 직후인 9월 19일부터 25일까지 6일간 축산정책팀

주관으로 방역·재난·환경 부서가 함께 하는 합동 점검반을 편성해 불법 농가 현장점검을 실시할 계획이다. 합동 점검을 통해 불법 축사가 적발되면 과태료 부과 및 고발 등 법적 조치가 엄정하게 이뤄질 예정이다.

박미경 군 축산농기계과장은 “이번 자진신고 센터 운영은 고병원성 AI 등 가축 전염병을 사전에 차단하고, 안전한 축산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라며 “무허가·무등록 축사 운영자들께서는 반드시 기간 내에 신고해 주시기를 바란다”라고 당부했다.

김민석 기자

영월군, 치매 안심 가맹점 신규 지정

영월군보건소는 지난 9월 4일, 치매환자와 가족들이 안심하고 일상생활을 할 수 있도록 마용업 ‘김문정해어샵’과 음식업 ‘더(THD)올린집’ 2곳을 치매안심 가맹점으로 신규 지정했다고 밝혔다.

이번 신규 지정으로 영월군의 치매안심 가맹점은 총 10개소로 늘어났다. 치매안심 가맹점은 생활 밀접 업소를 대상으로 치매 인식 개선 교육을 이수한 후, 치매 환자 친화적 환경을 갖춘 업소에 부여된다.

이번 신규 지정으로 가맹점에는 치매안심 가맹점 현판이 설치되었으며, 치매안심 지도 등 홍보물이 배부되어 주민 홍보도 강화되었다.

영월군은 이를 통해 치매환자와 가족이 더 편안하게 지역사회의 일상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될 것을 기대하고 있다.

특히 가맹점을 방문하는 주민들은 치매안심센터와 연계된 조기 검진, 상담 등 다양한 지원 정보를 안내받을 수 있어 치매 조기 발견과 돌봄 사각지대 해소에도 이바지할 전망이다.

엄해영 건강증진과장은 “치매안심 가맹점은 치매환자와 가족들이 지역사회에서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돕는 중요한 역할을 한다”라며 “앞으로도 다양한 업종과 협력하여 치매친화적 환경을 확산해 나가겠다”라고 전했다.

동해시, 극한 가뭄 대비, 달방댐 등 상수원 상시 점검 실시

달방댐 취수탑 시설 등 대체 용수 공급 현황 합동 점검



동해시는 극한 가뭄으로 인한 상수도 공급의 안정성 확보를 위해 달방댐을 비롯한 수계별 취·정수시설에 대해 상시 점검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최근 영동지역에 극한 가뭄이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동해시 역시 올해 들어 현재까지 내린 강우량(2025. 1. ~ 8.)은 307.7mm로 전년 대비(661.2mm) 46.5% 미만에 머물고 있다. 그러나 대체 용수 시설인 달방댐의 현 저수량은 442만톤(9. 5일 기준)으로 평시 대비 60% 수준을 유지하고 있어, 한국수자원공사 대응 단계별 기준상 정상 단계

에 머물고 있다.

동해시가 운영 중인 3개 정수장 역시 평년 대비 원수 확보 상황이 전반적으로 양호해 현재까지는 수도물 정상 공급에 차질이 없을 것으로 전망된다.

다만, 극한 가뭄이 연말까지 지속될 경우 대체 취수원인 달방댐의 수위가 ‘관심 단계’로 전환될 수 있어, 시는 사전 대비 차원에서 시설물 상시 점검을 강화하고 있다.

특히, 동해시는 잦은 가뭄에 대비하여 2017년~2019년까지 전천 상류

김민석 기자



2025 행정사무감사 도민제보를 받습니다!

접수기간

2025. 7. 30. ~ 9. 30.
(2025 행정사무감사 기간: 11. 6. ~ 11. 19.)

제보내용

① 도정 및 교육행정 전반에 관한 사항
② 행정의 위법 부당행위, 주요사업 등에 관한 개선, 예산 낭비, 기타 불편사항 등

제보방법

• 도민제보서를 작성하여 제보자가 편리한 방법 택일

- QR코드 접속
- 충청남도의회 누리집 (www.council.chungnam.go.kr)
- 방문 및 우편 (충청남도의회 의사담당관실 행정사무감사 도민제보 담당자 앞)

처리절차

※ 제보자의 신분은 철저히 비공개로 보호됩니다.

① 행정사무감사 실시 전 제보사항 회부 (의사담당관 → 상임위원회)

② 소관 상임위원회는 위원간담회 등을 통해 제보사항 처리 및 위원 지정

③ 본회의 감사결과보고서 채택 후 처리결과 통보 (상임위원회 → 의사담당관)

④ 제보자에게 처리결과 회신 (의사담당관 → 제보자)

* 채택시 격려금품 제공(1인 1개 지급)



QR로 제보하기

